

12-01 (통권 제 472호)

2012. 1. 6.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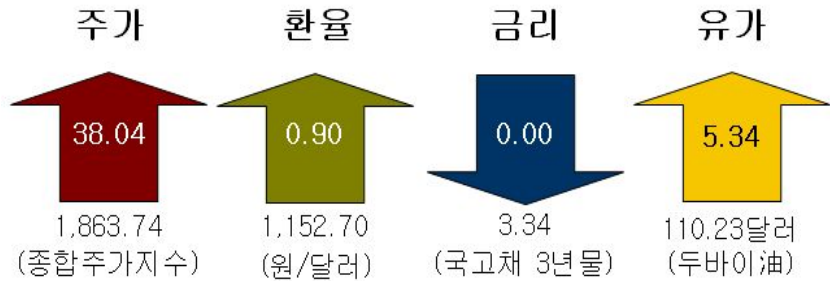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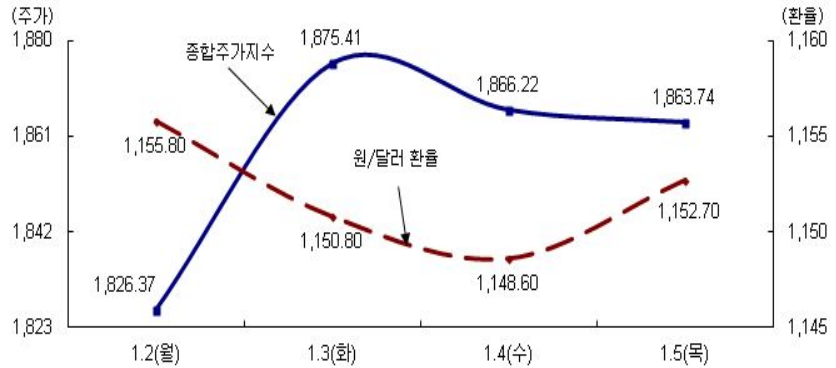
• 2012 국내 10대 트렌드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 국내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임 희 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2 국내 10대 트렌드

■ 올해에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기업경영, 정치사회 분야에서 10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시경제

① **꺼져가는 성장동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도의 하락은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내수 부문의 취약,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프렌들리 정책 지속을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비중 증대, 조속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주력하여 취약해진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② **일하고 싶은 노인, 맘흔리기 싫은 청년** 최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학력인플레로 높아진 청년 구직자의 기대수준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이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맘흔리는 일자리 기피현상이 청년층에서 증가하여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대기업 및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③ **가벼운 장바구니, 뽁뽁한 살림살이** 고용시장 및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1%대로 낮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 실현 등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실질임금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 살림살이가 뽁뽁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제고, 공공 서비스의 단계적 인상, 전세 수급 조정 등 미시적 물가 안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④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장** 선거의 해인 2012년에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장이 경제사회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생겨난 신빈곤층은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집이 있지만 그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딱지가 붙은 '워킹푸어', 자식 교육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타이어 푸어'가 여기에 속한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한 만큼,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⑤ **화려한 복지, 초라한 일자리** 선거의 해 2012년에는 출마한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화려한 복지 공약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복지는 뒷전에 밀릴 전망이다. '08년 이후 4년간 복지 분야 총지출은 8.0%, 보육·여성·노인·청년 관련 지출은 17%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자리 관련 복지 지출은 5.1% 증가에 그쳤다. 복지와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 기업경영

⑥ **세계 1등 제품으로의 성장**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나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오디오 혁신을 불러왔던 소니의 워크맨 성장세의 테자부를 보듯 대한민국도 2008년 금융위기와 석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철강, 전자기기 등 전통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TV 등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⑦ **빨간 신호등 켜진 기업 경영** 2012년에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기업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통한 내실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 중인 가운데 선진국의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 위축,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기업의 매출과 채산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원가절감 및 내부 조직개편에 힘쓰는 한편 유동성 확보 문제가 주요 경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 정치사회

⑧ **K-Pop의 세계 공습** 2012년에도 K-Pop은 한류를 대표하며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고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탈(脫) 아시아 가능성을 보여준 K-Pop은 뉴미디어 시대 최초의 글로벌 문화 확산 모델에 도전하게 된다. 특히 2012년의 K-Pop은 장르적 다변화의 시도, 서구에서의 지속성 증명, 아시아에서의 협한류 극복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문화 콘텐츠로 진화할 예정이다.

⑨ **다면화된 사회갈등의 분출** 2012년은 그간 잠재적이었던 사회갈등 요인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4.11총선과 12.19대선 과정에서 이념·세대·지역·계층·노사·다문화 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이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해외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그 강도가 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은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재스민 혁명, 반월가 시위 등에서 나타난 시민의 분노(anger)가 이들 선거에서 어젠다로 재부상할 것이며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⑩ **남북관계, 새로운 시작**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권력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남북관계 방향 설정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향후 1년간의 추모 기간에는 내부 체제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혼통치를 실시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진입을, 북핵 문제는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원조 확보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예상된다.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적인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I. 10개 트렌드 선정

○ 올해에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기업경영, 정치사회 분야에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거시경제 부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 ‘일하고 싶은 노인, 맘흘리기 싫은 청년’, ‘가벼운 장바구니, 뽁뽁한 살림살이’,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장’, ‘화려한 복지, 초라한 일자리’ 등이 선정됨
-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세계 1등 제품으로의 성장’, ‘빨간 신호등 켜진 기업 경영’의 2개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K-Pop의 세계 공습’, ‘다면화된 사회갈등의 분출’, ‘남북 관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도래’의 3개 트렌드가 전망됨

< 2012년 국내 10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꺼져가는 성장 동력 - 일하고 싶은 노인, 맘흘리기 싫은 청년 - 가벼운 장바구니, 뽁뽁한 살림살이 -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장 - 화려한 복지, 초라한 일자리
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1등 제품으로의 성장 - 빨간 신호등 켜진 기업 경영
정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의 세계 공습 - 다면화된 사회갈등의 분출 - 남북관계, 새로운 시작

II. 국내 10대 트렌드

1. 꺼져가는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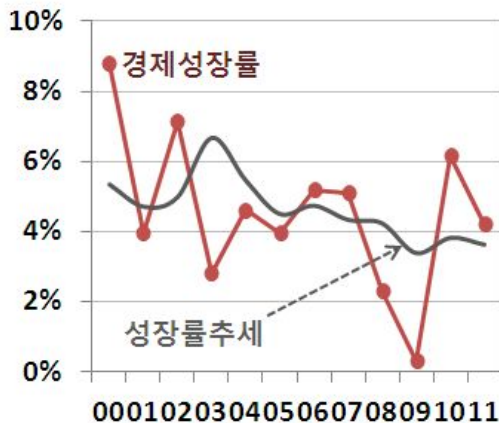
○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4%대 중반에서 금융위기 이후 평균 3%대 중후반으로 하락하며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됨
-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수출 경기가 둔화되면서 4%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내용) 한국 경제 성장 속도의 하락은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내수 부문의 취약,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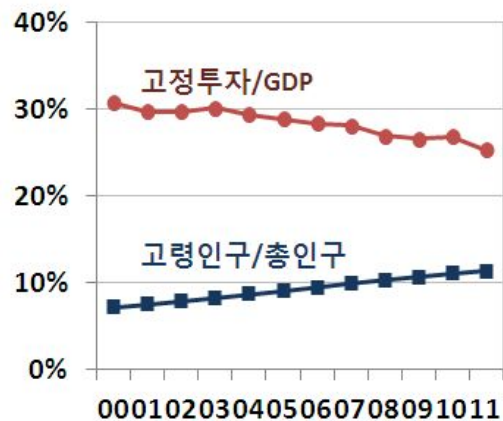
-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 국민계정상 고정투자/GDP 비중은 2000년 31%에서 2011년 25%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 저하를 유발함
-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 고령인구/총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1년 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동투입력의 약화, 경제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짐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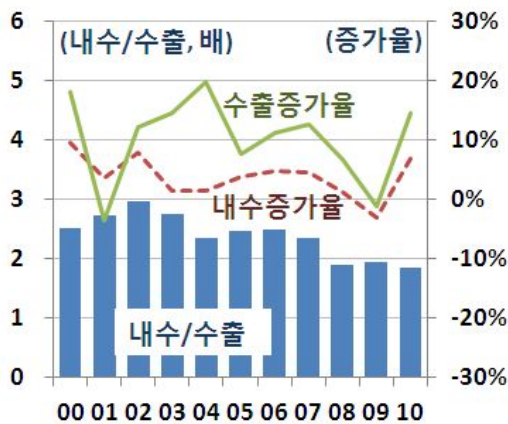
<고정투자/GDP 및 고령인구/총인구 추이>



자료: 한국은행/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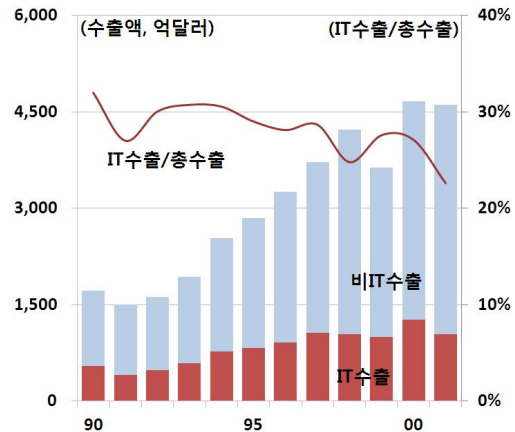
- **내수 부문의 취약** : 2000년대 들어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재정위기 등 상시화된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안정적인 수출 경기 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내수 부문이 취약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국민계정상 재화·서비스수출/GDP)는 2000년 31%, 2010년에는 49%로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경제의 내수/수출 비율은 2000년 2.5배에서 2010년 1.9배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임
-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음
 - 70년대 경공업, 80년대 철강, 90년대 가전, 2000년대 자동차, IT 등 시대별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 존재하였으나,
 - 그러나 최근 IT 수출 비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IT 산업의 경제 성장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 내수=소비+투자, 수출=재화와서비스수출.

<IT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1년은 1~10월 기준.

○ (시사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프렌들리 정책 지속을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비중 증대, 조속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산업연구본부 주 원(02-2072-6235)

2. 일하고 싶은 노인, 땀흘리기 싫은 청년

- (의미) 최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학력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청년 구직자의 기대수준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이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
 -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가 증가됨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를 넘어섬
 - 땀흘리는 일자리 기피현상이 청년층에서 증가하여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대기업 및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 심화

- (내용) 생계형 이유로 인한 고령 취업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구직난을 겪는 고령층도 증가하고 청년층 실업문제는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고령층에서도 구직난을 겪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고령층 취업자는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에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함

<실버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여부>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원함	83.0	84.2	87.6	87.4
원하지 않음	17.0	15.8	12.4	12.6

<실버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이유>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일하는 즐거움	36.6	36.0	35.9	38.6
생활비에 보탬	54.6	55.8	55.9	53.1
기타	8.8	8.3	8.3	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고령층 부가조사,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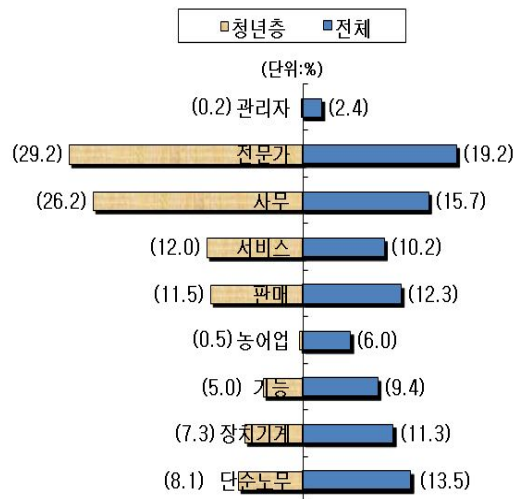
2)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60~79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장래 근로 희망 이유는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비중을 산출함.

-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심화되며 높아진 청년층 구직자의 기대수준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이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청년층의 일부 직종 쏠림 현상과 대기업 선호 현상 심화
- 청년 취업자가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4%로, 전체 취업자 34.9%에 비해 매우 높아 청년 취업자의 일부 직종 쏠림 현상이 심각함
- 청년층 취업자 중 1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은 20%로서, 전체 취업자의 15.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심화

< 기업 규모별 취업자 비중 >

	(%)	
	청년	전체
1-9인	41.9	53.8
10-29인	20.8	16.5
30-99인	17.2	14.5
100-299인	9.8	7
300인 이상	10.2	8.2

< 직업별 취업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0년 연간 데이터 기준임.

○ (시사점)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대책 필요

-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발 맞춰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대
- 청년 고용의 미스매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력인플레이 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연구본부 김민정(02-2072-6212)

3. 가벼운 장바구니, 딱딱한 살림살이

○ (의미) 가계 실질 소득이 미약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없는 가계 빚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감소하고, 높은 체감 물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여 가계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짐

-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 이에 더해 장바구니 물가를 포함한 체감물가가 너무 올라 가계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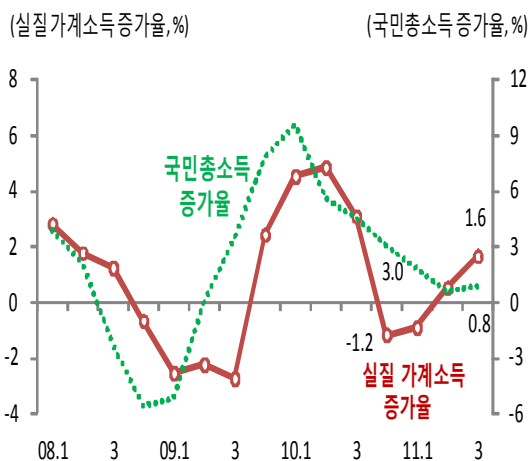
○ (내용) 2012년에 고용시장 및 국내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 실현 등 물가 상승세 지속,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 살림살이는 딱딱해질 것임

-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1%대 : 가계 실질소득이 국내 경기 부진으로 낮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가계 명목소득은 2011년 3/4분기 6%대까지 증가하였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2011년 3/4분기 1%대 증반에 머물고 향후에도 낮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011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대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국내 성장세 미약으로 낮은 증가율이 예상됨

< 가계소득 및 GNI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물가와 임금 증가율 추이 >

구 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1/4	2/4	3/4
소비자물가	3.0	26	29	32	3.8	4.0	4.3
생활물가	3.7	3.0	3.1	3.8	4.4	4.2	4.7
전월세물가	1.5	1.8	20	23	27	3.7	4.4
명목임금	7.6	6.0	11.1	5.9	1.6	0.4	-4.5
실질임금	5.1	3.3	7.4	27	-2.4	-3.7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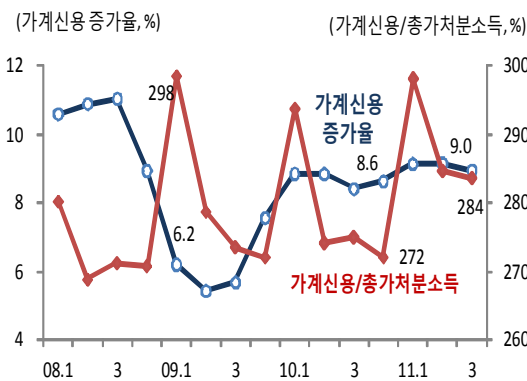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1) 소비자물가는 개편된 물가지수임.
 2) 분기 임금은 전체근로자 기준이고 3월, 6월, 9월, 12월 수치임.

- 공공요금 인상 실현을 통한 물가 상승 : 원가상승으로 인한 버스비와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실현됨으로써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실질임금 감소 폭이 커짐
- 높은 체감 물가 수준 :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의 분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p 이상 상회하고 있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2011년 3분기에 8.0% 감소함
-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 가계부채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 및 가계 규모 조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것임
-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 지속 :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가계 임금이 정체되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임. 가계부채 증가, 지출 증가로 인해 가계저축률이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¹⁾

○ (시사점) 2012년에 물가 불안 지속,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서민 가계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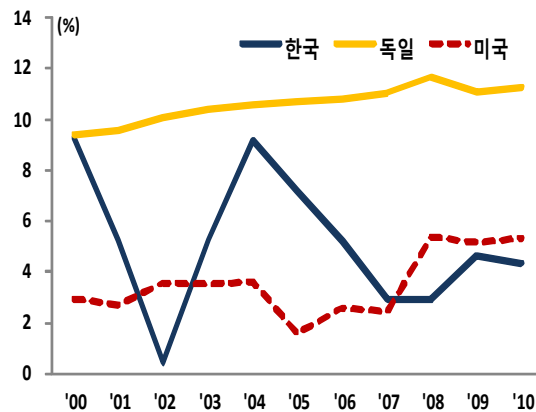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공공 서비스의 단계적 인상, 전세 수급 조정 등 미시적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한 물가 안정화 등이 절실한 상황임
- 가계부채의 급증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고 소비위축을 통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에 주력²⁾

< 가계신용 증가율 및 가계신용/총가처분소득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국 가계저축률 추이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11.

경제연구본부 임희정(02-2072-6218)

- 1) 2011년 중에도 가계부채는 45조 원 이상 증가하여 3/4분기말 892조 원을 돌파. 가계부채 증가에 더하여 경직적 소비지출(주거, 음식, 교통, 통신, 교육 등)과 비소비성지출(조세, 사회부담금 등) 증가는 가계 저축률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 2) 이를 위해서는 금리인상, 대출총량규제 등의 거시적 접근을 지양하고 동시에 가계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재무구조 개선 지원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 추진.

4.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장

○ (의미)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장'이 2012년에 경제사회 이슈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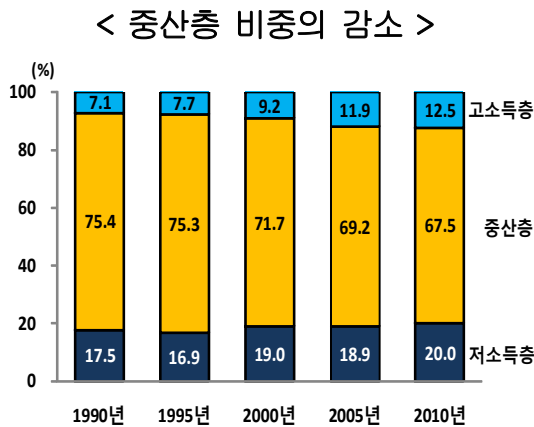
-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
 - 그런데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성장이 저절로 중산층을 강화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중산층이 좁어지는 경향이 있음
- 선거의 해인 2012년에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장'이 경제사회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은 계속 빈곤층에 속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불만이 많음
 - 이들은 학력이 높고 불만을 표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세력화되고 있음
- 경제·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을 의식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신빈곤층이 늘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키우고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내용) 중산층이 新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삶도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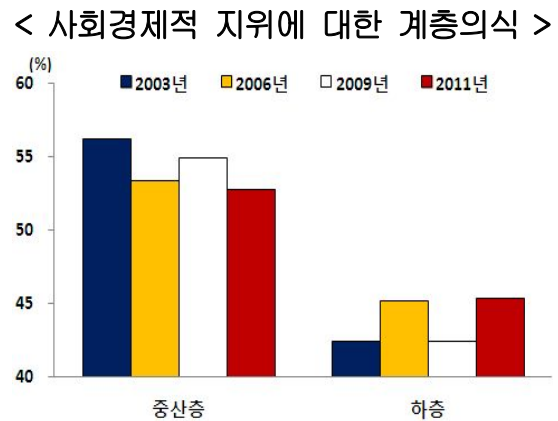
- **중산층 붕괴** : 1990년 75.4%에 달하던 중산층³⁾이 2010년 67.5%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7.1%에서 12.5%로 증가. 거의 100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
 -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중이 1990년의 15.8%에서 2010년 23.3%로 상승하는 등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삶도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음
- **중산층 의식 약화** :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에 있어서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하층은 증가
 -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3년 56.2%에서 2011년 52.8%로 줄어든 반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기간 42.4%에서 45.3%로 증가

3)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중위값의 50~150%인 가구

- **신빈곤층 형성** : 중산층에서 추락한 신빈곤층은 학력이 높고 소득도 높은 편이나, 집과 직장,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은 중산층을 상징하는 말들이나, 신빈곤층은 여기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
 - 2005~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 2010년 108만 가구에 이룸
 - 중산층 중 맞벌이 비중이 1990년 15.0%에서 2010년 37.0%로 급증하였으나,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딱지가 붙은 워킹푸어가 늘면서 삶은 여전히 어려움
 - 자식 교육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는 2010년 102만 가구로, 고령은퇴가구 264만 가구의 38.4%에 이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 **(시사점)**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의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학력자인 신빈곤층을 고용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함
 - 또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중산층·고소득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고,
 -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과 연계하고, 자녀 양육비나 출산수당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설계

경제연구본부 이준협(02-207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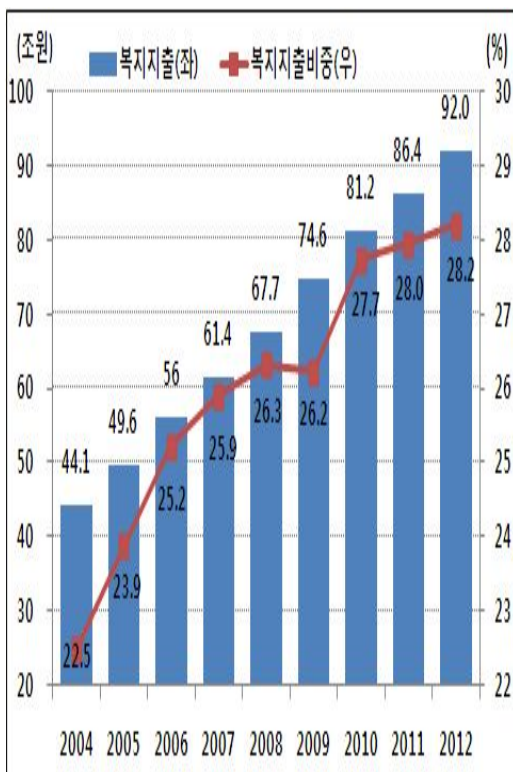
5. 화려한 복지, 초라한 일자리

○ (의미) 선거의 해 2012년에는 화려한 복지 공약의 유혹에 시달릴 전망이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등 일자리 복지는 뒷전에 밀릴 전망

- 2012년은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시작해서 12월 대통령 선거로 끝나는, 소위 '선거의 해'하고 할 수 있는 바, 출마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복지 공약의 유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여야를 불문하고 20-30대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며, 투표율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노후복지 공약도 계속 제시될 것임

○ (내용) '08년 이후 4년간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1% 증가한데 비해, 복지 분야 총지출은 8.0%, 보육·여성·노인·청년 관련 지출은 17%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자리 관련 복지 지출은 5.1% 증가에 그침

< 복지지출 증가 추이 >



자료: 보건복지부(2011) / 주: GDP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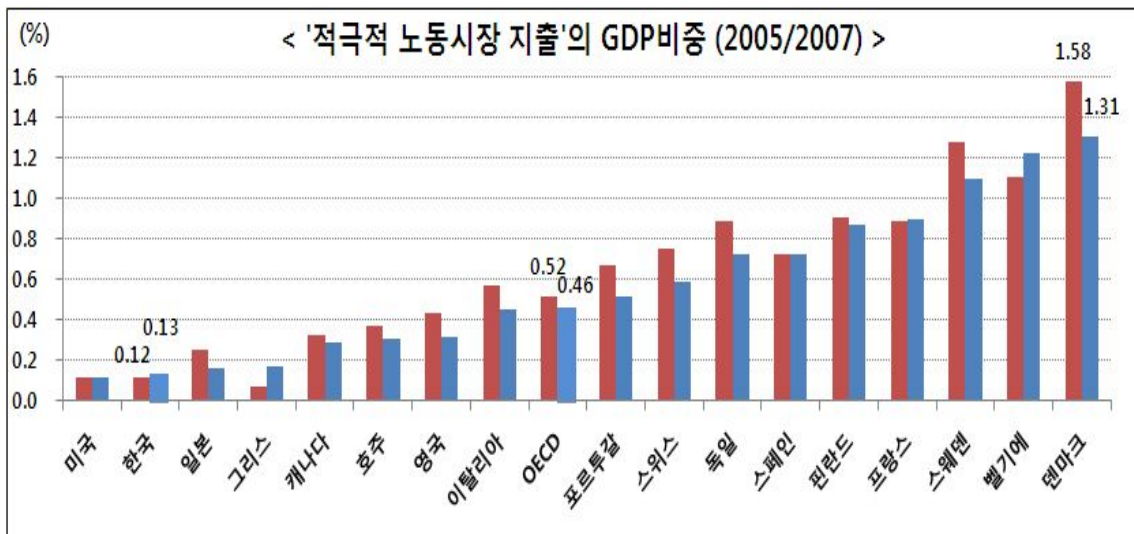
< 복지에산 분야별 추이 >

(단위: 조원, %, 본예산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총지출	67.7	74.6	81.2	86.4	92.0	8.0
기초생활보장	6.9	7.1	7.3	7.5	7.9	3.4
취약계층 지원	0.9	1.1	1.5	1.3	1.4	11.7
공적연금	21.4	23.8	26.0	28.2	31.4	10.1
보육가족	1.6	1.9	2.4	2.9	3.0	17.0
여성						
노인	2.2	3.3	3.6	3.9	4.0	16.1
청소년						
노동	10.5	11.8	12.3	12.6	12.8	5.1
보훈	3.1	3.4	3.6	3.9	4.1	7.2
주택	14.7	15.0	16.7	18.1	19.0	6.6
사회복지 일반	0.4	0.4	0.5	0.5	0.6	10.7
보건의료	1.2	1.5	1.7	1.6	1.6	7.5
건강보험	4.6	5.2	5.4	5.7	6.0	6.9
식품의약 안전	0.2	0.2	0.2	0.2	0.2	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 주: 2012년은 예산안

- 결과적으로, 당장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보육, 여성, 노인, 청년 관련 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 일자리 관련 복지 예산은 증가 속도가 느림
- 청년들의 미스매치를 줄여주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뒷전에 밀릴 것임
 -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의 GDP비중은 우리나라가 0.13%로서 OECD 평균인 0.5%에 크게 못 미치며,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덴마크는 1.3%로서 우리의 10배 수준



자료 : OECD SOCX Data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주 :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포함됨

- (시사점)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창출형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선심성 복지의 유혹은 뿌리쳐야 함
 -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내실화하는 고용창출형 복지와 선거를 의식한 과잉 복지는 구별되어야 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투자 확대,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선진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의 비중을 GDP 0.5% 수준까지 끌어 올리며, 장기적으로는 덴마크 등과 비슷한 GDP 1% 수준까지 높여 가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동열(02-2072-6213)

6. 세계 일등 제품으로의 성장

○ (의미와 현황)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나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오디오 혁신을 불러왔던 소니의 워크맨 성장세와 비슷하게 2008년 금융위기와 석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자동차, TV 등 한국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세계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당시 도요타는 글로벌 판매량이 처음으로 3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함
- 30여년이 지난 현재 자동차도 2008년 금융위기와 석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글로벌 판매량 300만대를 넘어섬
- TV시장과 IT 분야에서도 선진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삼성전자 등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당당히 자리잡고 있음

○ (내용) 전통적인 세계 일등 제품들이 주춤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글로벌시장 지각도 크게 요동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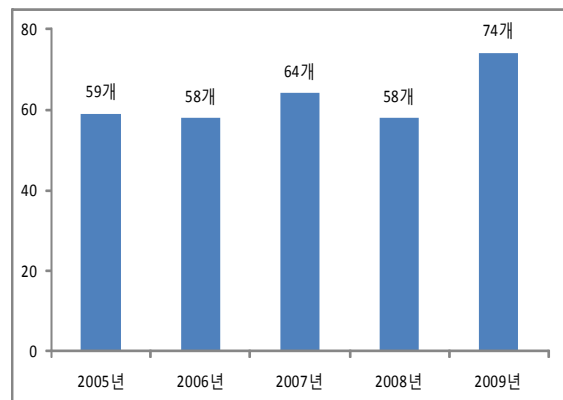
- 세계 1위 수출 품목 :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한 배경에는 제품 기술 향상에 따라 세계 일등 제품으로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출 1위 제품의 지속적인 증가때문임
- 전세계 1위 수출 품목수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이나 광업 등 일차산업 제품 보다는 중화학공업 제품 50개를 중심으로 경공업 제품 등에서 꾸준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기반이 됨
- 특히, 세계 수출 1위 품목수는 2005년 59개를 거쳐 2009년 74개 까지 늘어나면서 전세계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

< 세계 1위 수출 품목수 현황 >

(단위: 억달러)

구분	품목수	수출액
경공업	23	93.4
중화학공업	50	911.0
농업/광업	1	0.9
총계	74	1,005.3

< 세계 수출 1위 품목수 추이 >



자료 : KITA, UN Comtrade.

주: 2009년 현황 자료임.

- **철강 부문** : 철강 제품을 비롯한 전자기기 제품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철강산업의 경우 양적으로도 성장했을 뿐 아니라, 철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질적 성장 달성
 - 지속적으로 세계 일등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기기 제품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철강 부문 세계 1위 수출 품목 >

(단위: 억달러)

품목명	수출액	세계 시장점유율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10mm초과)	53.2	32.9%
에이치(H) 형강	63.7	20.2%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21.4	21.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59.2	24.0%
스테인레스강의 선	13.8	11.1%

< 전자기기 세계 1위 수출 품목 >

(단위: 억달러)

품목명	수출액	세계 시장점유율
유입식 변압기	109.5	16.4%
연산축전지	78.9	15.6%
축전지 부분품	34.8	21.5%
자전관	3.9	18.4%
메모리반도체	1193.2	24.0%

자료: KITA, UN Comtrade

주: 2009년 현황 자료임

- **IT 부문** :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IT 제품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 전자기기 제품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LED TV를 개발하여 불황 극복의 발판을 삼았음
 - 선진기업들조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하는 기술경쟁에서 밀리면서 급기야는 TV사업을 축소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 (시사점) 기존 세계일등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세계일등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존 세계일등제품에 만족해서는 대한민국의 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경제적 발전없이 선진국 진입도 어려움
 - 안정적 선진국 사회의 진입을 위해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세계일등 제품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함

산업연구본부 장후석(02-2072-6234)

7. 빨간 신호등 켜진 기업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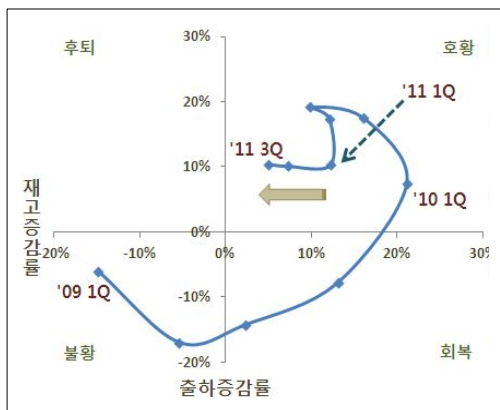
○ (의미) 국내외 경기 불안 요소들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2011년 하반기 들어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불안 요인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에는 채산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비상경영체제가 각 기업들의 주요 경영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

○ (내용)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고조와 기업들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한 내실경영이 화두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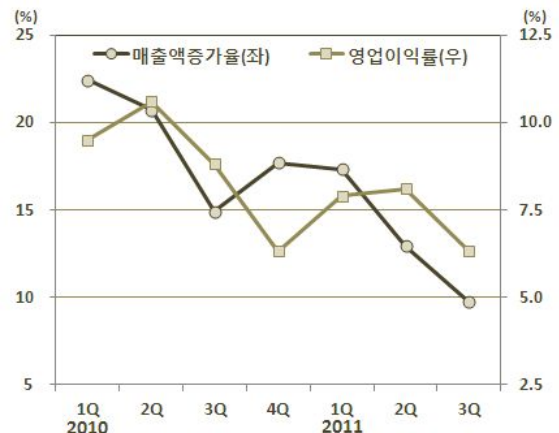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선진국 경기의 불투명성과 함께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는 경영전략 수립의 어려움을 가중
 - **산업경기:** 국내 제조업체의 출하 감소 및 재고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2012년까지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영실적:** 2010년 이후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

<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 >



자료 : 한국은행

< 기업 경영 실적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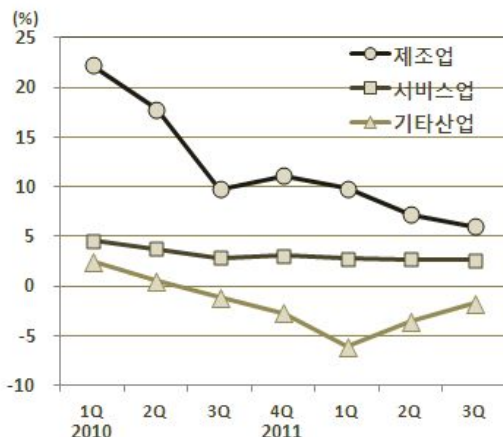
자료 : fnguide.com

주 : 상장 제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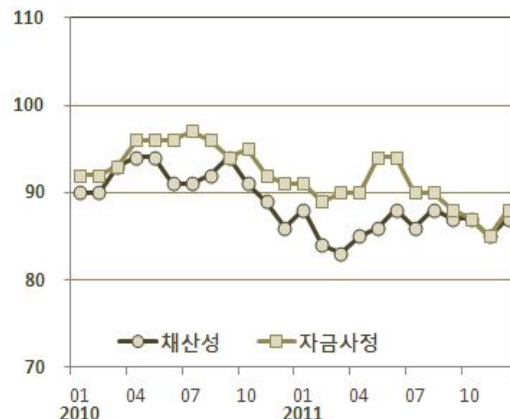
- **기업의 불안감 확산** : 매출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산성 및 자금사정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확산
 - **산업생산** : 수출, 내수업종을 불문하고 주요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
 - **채산성 및 자금사정** : 채산성 및 자금사정 전망 역시 100 미만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울 전망

- **내실경영 확대** : 경영전략의 무게중심이 성장보다는 생존으로 이동할 전망
 - **내실경영** : 당분간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나 M&A 등 공격경영보다는 원가절감, 내부 조직개편 등 내실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유동성 확보** : 금융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채권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현금 확보가 경영 이슈로 부상할 전망

< 주요 산업 생산증가율 추이 >



<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 (시사점) 현재의 위기를 외부 변화에 대한 내성 강화 등 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전환하려는 자세가 중요

- 내실경영이 요구되는 현재의 경영환경을 기회로 삼아 재무 건전성 강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위기 속에서 무조건적인 비용 감축보다는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신규시장의 모색 등 위기 이후의 기회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

산업연구본부 백홍기(02-2072-6228)

8. K-Pop의 세계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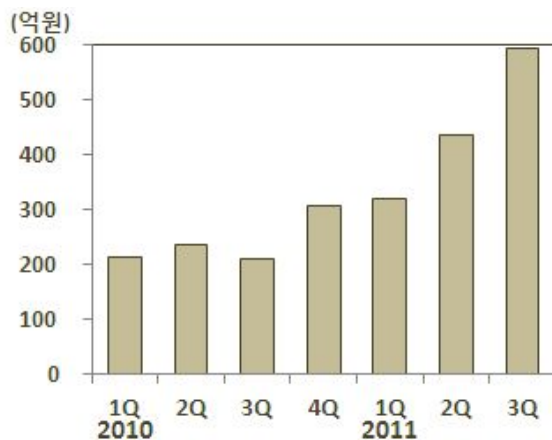
○ (의미) 현재 대중문화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K-Pop은 2012년에도 한류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며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

- K-Pop의 세계적 확산 :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K-Pop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확산되며 관련 수출액의 증가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
 - 국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특정 국가의 음악을 그 나라 언어로 따라하고 율동을 함께하는 현상은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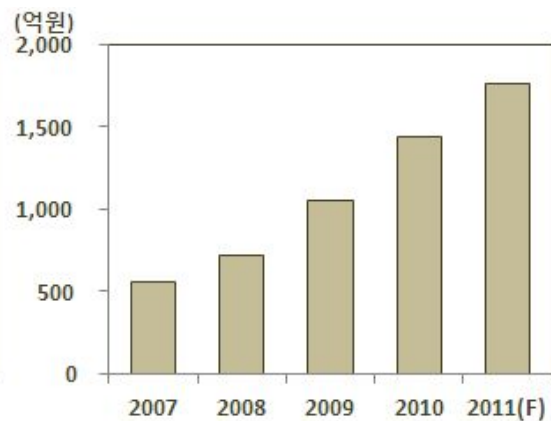
○ (내용) 한류의 탈(脫) 아시아가 가능함을 보여준 K-Pop은 뉴미디어 시대의 글로벌 문화 확산에서 최초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 확산 요인 및 현황: K-Pop은 장르적 특성 및 전파 수단의 변화, 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신(新)한류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 확산 요인 : 문화적 이해 없이도 수용이 용이한 댄스음악의 특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보급, 해외 진출 경험의 축적 등이 확산의 원동력
 - 탈(脫) 아시아의 원년 : 2011년의 K-Pop은 다른 한류 콘텐츠와 달리 민족 및 지역 간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며 서구 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
 - 신(新)한류의 중심 : K-Pop은 문화 수출의 증가, 관련 기업의 성장 등 산업적 성과를 견인하며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한류의 킬러 콘텐츠로 부상

< 음반 및 음악 공연 수출액 >



< 3대 엔터테인먼트기업 매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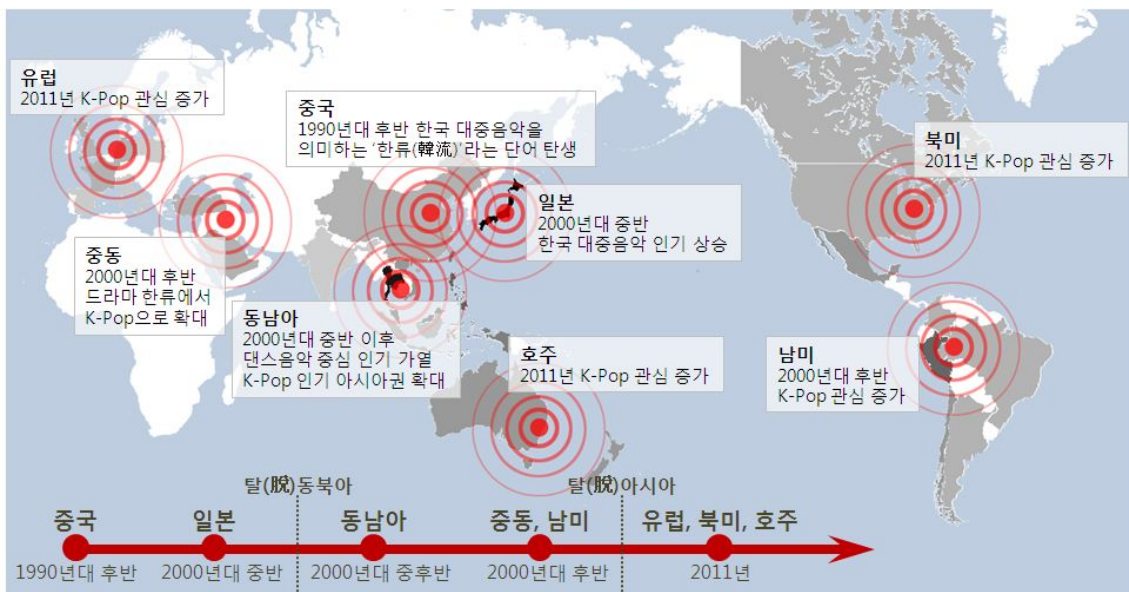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각사 사업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엔터테인먼트 기업 매출액은 SM, YG, JYP의 합

2) 각 사의 재무 기준일이 상이하여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자체 추산.

- **2012년 K-Pop의 진화** : 장르의 다변화 시도, 서구에서의 인기 지속 증명, 아시아에서의 반발 극복 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문화 콘텐츠로의 성장이 예상
 - **장르적 다변화 시도** : 기존 K-Pop 스타들의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 댄스음악 외에도 경쟁력을 검증받은 다양한 스타들의 해외 진출 등이 예정
 - **새로운 과제**의 극복 : 서구에서의 지속성 증명과 아시아에서의 혐한류 극복 여부에 따라 K-Pop은 뉴미디어 시대에서 글로벌 문화 전파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전망

< K-Pop의 세계 공습 >



주 : 1) 국가별로 색이 진할수록 2011년 K-Pop의 검색량이 많음을 의미(한국 제외)
 2) Google의 검색어 'K Pop' 검색 기준(2011년 1월 1일 ~ 12월 24일).

○ (시사점) K-Pop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시각을 배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국제 문화 교류의 안목을 통한 접근이 필요

- **사회적 인식** : K-Pop이 한국의 가치를 대표한다는 확대 해석의 지양
 - **문화 교류 차원의 접근**: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K-Pop 확산이 일방적 문화 점령이 아닌 양자 간 문화적 가치 증진이라는 인식이 필요
- **정부 정책** : 당장의 성과보다는 콘텐츠 다양화를 목표로 둔 장기 정책이 중요
 - **콘텐츠의 다양화** : 현재 K-Pop의 중심인 댄스음악의 홍보보다는 시장 시스템에서의 육성이 어려운 비인기 장르의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 축적이 요구

산업연구본부 김필수(02-2072-6238)

9. 다면화된 사회갈등의 분출

- (의미) 선거의 해인 2012년은 그간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이념·세대·지역·계층·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발생할 것임
 - 특정 이슈를 두고 갈등이 중층적,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되면 갈등의 빈도와 강도도 커지고 해결 방안도 복잡성을 띠게 됨
 - 2012년 우리 사회의 갈등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4.11총선과 12.19대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잠재된 갈등이 현재화되고 증폭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예상되는 갈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방면의 갈등이 예상됨
 - 정치적 갈등 : 선거 과정에서 권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각종 정책에서 이념 갈등으로 이어질 것임
 - 권력 갈등 :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 등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이념 갈등 : 선거 과정에서 이념갈등은 복지-성장 논쟁, 통일 및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격화될 것임.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후 새로운 남북관계 이슈는 그 동안 잠복해 있던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다시 끄집어낼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 갈등 : 경기 침체와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등은 부자와 빈자,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구도를 보다 심화시킬 것임
 - 한미 FTA 갈등 :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도 총선 과정에서 쟁점화 될 것이 분명하며, 대선까지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임
 - 노사 갈등 : 2011년의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노사갈등이 선거 과정에서 현재화되고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적 갈등 : 세대, 지역, 다문화 갈등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큼
 - 세대 갈등 : 이미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에서 40대가 동질적인 투표 성향으로 뭉치면서 '2040세대의 동맹'이 주목을 받음. 이는 지역 구도가 약한 서울에서 세대 변수가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얘기임. 세대갈등은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와 연결되면서 더욱 고착화 될 전망

- **지역 갈등** :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부추겨지면서 어김없이 지역갈등이 되살아날 것임
- **다문화 갈등** : 조만간 우리 사회도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문화갈등, 인종갈등이 확산되면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을 혐오 현상)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임

< 2012년 예상되는 갈등 >

구 분	예상되는 갈등의 종류
정치적 갈등	권력 갈등(여야 갈등), 이념 갈등
경제적 갈등	노사 갈등, FTA 관련 갈등, 계층 갈등, 환경 갈등
사회적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다문화 갈등, 대북 관련 보혁갈등

-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갈등들은 해외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그 강도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글로벌 정권 교체'의 해임
 - 중국도 2012년 10월로 예정된 공산당전국대표회의에서 지도자가 바뀔 전망
 - 채스민 혁명, 반(反)월가 시위 등에서 나타난 시민의 '분노(Anger)'가 이들 선거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시사점) 2012년은 선거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회 갈등이 현재화되고 증폭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과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임
 - 남미의 경제성장 실패는 경제정책 자체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덩어리'에 걸려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임
 - 분열된 사회(divided societies)를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함

컨설팅본부 박태일 본부장(02-2072-6260)

10. 남북관계, 새로운 시작

○ (의미) 북한 체제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권력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남북관계 방향 설정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

- 체제 전망 : 김 위원장 사후 1년의 추모기간에는 김 부위원장 중심의 권력체제가 유지되면서, 후견인 그룹과 유훈통치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운영 예상
 - 추모 기간 중에 권력은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으로 이동
 -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유지하면서 군부 장악과 내부 체제 강화 예상
 - 경제적으로는 강성국가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며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면서 국정 운영할 것임
 - 그러나 체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은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들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

○ (부문별 전망)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의 개막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등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

- 정책 기초 : 과도기적으로 내부 정비에 우선하면서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선군정치와 강성국가 건설 기초가 유지될 전망
 - 유훈통치 기간은 지난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되며, 당 총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식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 선언 예상
 -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기대
 -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적인 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적용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정책 : 체제 유지와 인민 영도를 위해서는 경제난 해결과 중장기 비전 제시가 절대 긴급하며, 이 과정에서 대중 의존도 심화가 확대될 것임
 -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함께, CNC(컴퓨터제어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 강조에 역점을 둘 전망
 - 특히 후견인 그룹의 장성택(평양주택 10만호 건설, 황금평·나선 개발 주도, 2002년 경제시찰단으로 서울 방문)과 김경희(경공업부장), 김양건(대풍그룹 이사장) 등은 외자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 북핵 문제 :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원조 확보와 북미 관계 개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 등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노력 기대
 - 2012년은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로 각국들은 자국의 국내 현안이 우선 해결

- 과제여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실제로 미·중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인정과 활발한 접촉을 추진 중에 있음
- 북한도 동북아의 새판짜기가 가시화될 때까지 핵 등의 국제도발에 신중 예상
 - 한편,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망 2달 후부터 북미회담을 재개하여 10월에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를 도출했고, 11월에는 핵동결을 선언한 바 있음
- 남북관계 : 우리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나, 북한은 내부 체제 강화와 강경 이미지 부각 등을 위해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색 국면 지속 예상
- 남한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넘는 정책전환의 명분 확보가 어렵고 북한은 체제단속과 위기관리 차원에서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한 긴장고조 가능성 존재
 - 실제로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추도대회 직후에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남 성명을 발표 (2011. 12. 30)

< 유헌통치의 주요 정책 전망 >

	주요 모토	세부 내용
정치	선군정치	- 군과 당 중심의 권력 구도 유지
경제	경제 강성국가 진입	- 외자유치·북중경협 확대 (황금평, 나선 개발 등)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이행 · 농업, 에너지, 물류단지, 철도·도로 등 SOC 확충 -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평양 10만호 건설 등 - 자립민족경제 건설: 철 비료 섬유의 주체생산체계 구축
북핵	한반도 비핵화	- 6자회담 및 비핵화 노력 재개, 체제안전 보장 요구 - 핵보유국과 평화적 핵개발 이용 주장 (경수로 요구)
대외	실리추구의 균형외교	- 북중 관계 강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 중·러와 줄달리기의 실리 외교 추구
대남	평화협정 체결 남북공동선언 이행	- 대화와 긴장고조를 통해 주도권 우위 경쟁 - 남북경협 확대로 경제 실리 추구

○ (시사점)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新남북관계 형성과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필요

- 불필요한 대북 자극을 자제하고 선제적·대승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하여 남북 간의 안정적인 대화 채널 확보와 한반도의 긴장 관리가 요구됨
- 천안함·연평도에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확대, 5.24 조치 완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경계

경제연구본부 홍순직(02-2072-622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3.0	3.9	3.7	2.5	2.3	1.5	0.4	1.3	1.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1.1
일본	3.9	6.0	2.1	3.3	-1.1	-0.5	-3.6	-1.3	5.6	2.3
중국	10.3	11.9	11.1	10.6	9.8	9.5	9.7	9.5	9.1	9.0
한국	6.2	8.5	7.5	4.4	4.7	4.2	4.2	3.4	3.5	4.0

주: 1) 2011년, 2012년 전망치*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47	3.16	2.00	1.88	1.99	0.11%p
	엔/달러	81.19	83.36	80.66	76.77	77.07	76.74	-0.33¥
	달러/유로	1.3350	1.4158	1.4492	1.3582	1.2940	1.2936	-0.0004\$
	다우존스지수(p)	11,578	12,320	12,414	11,154	12,218	12,416	198p
	닛케이지수(p)	10,229	9,755	9,817	8,701	8,455	8,489	3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3	3.76	3.55	3.34	3.34	0.00%p
	원/달러(원)	1,134.8	1,096.7	1,067.7	1,173.5	1,151.8	1,152.7	0.9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6.7	2,100.7	1,769.3	1,825.7	1,863.7	3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106.74	95.18	82.16	99.22	102.53	3.31\$
	Dubai	88.80	109.4	106.75	101.68	104.89	110.23	5.34\$
CRB선물지수	332.80	359.43	338.05	305.96	305.30	308.54	3.24\$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